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Gwangju Design Biennale  
**2019**

이길형 총감독, 마스터플랜 발표  
올해 주제는 '휴머니티'

소쇄원 모티브 '커뮤니티 정원'  
휴식공간 통해 공동체 가치 모색

'사람을 노래하다' 주제관  
이해·공감... 따뜻한 세상 고민

'바우하우스 100주년 특별전'  
예술버스 프로젝트 조형물 전시

# “디자인 통해 지속가능한 인류공동체 비전 제시한다”



바우하우스 100년 특별전에서 전시될 바우하우스 상징 조형물 'Tiny Bauhaus'.



본전시에서 선보일 키스 미클로스의 'Ball Room'.

'휴머니티(HUMANITY·HUMAN+COMMUNITY)'를 주제로 열리는 2019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디자인의 가치와 역할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인류 공동체를 위한 디자인 비전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으로 꾸려진다.

이길형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은 29일 라마다플라자 광주 호텔에서 '2019 광주디자인비엔날레' (9월7일-10월31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등)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고 참여작가와 전시 구성 등을 소개했다.

◇디자인비엔날레 상징조형물을 만나다  
올해 행사에서는 본 전시가 열리는 비엔날레 전시관 앞에 행사를 알리고 환영의 의미를 담은 조형물들이 설치되는 게 특징이다. 담양 소쇄원에서 모티브를 얻은 웬디 선더스와 빈센트 드 그라프의 '커뮤니티 정원'은 관객들에게 체험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작품으로 공동체적 가치를 생각해 보게 하는 프로젝트다.

또 주제관으로 진입하는 계단과 광장을 연결하는 바닥 그래픽 작품을 전시하며 건물과 건물 사이를 이어주는 오브제를 통해 주제 휴머니티를 구현한 '웰컴 아치'도 설치한다.

◇사람을 생각하는 따뜻한 디자인  
'사람을 노래하다'는 주제로 펼쳐지는 주제관은 디자인을 통해 사람이 어떻게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며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고찰하고, 사람사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고민들을 풀어낸 작품을 전시한다.

네덜란드 출신 덴 루스카르데의 'Lotus'는 만지면 반응하는 작품의 특성을 이용해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접촉하며 작품이 어떻게 건물과 환경, 과거와 현재, 인간과 소통하는지 탐색해 보는 설치물이다. 헝가리 작가 키스 미클로스의 'Ball Room'은 현대인의 감정을 대변하는 이모티콘을 '공'이라는 물체로 구현한 작품으로 이모티콘 디자인을 통해 서로의 감정을 표출해보는 프로그램이다. 또 관객들이 미디어 작품의 일부가 돼 인간다움을 표현하는 '휴머니티 아우라'도 눈길을 끈다.

◇바우하우스의 역사를 찾아서  
국제전은 '다음 세대에 주는 선물'을 주제로 꾸며졌다. 화제를 모으는 건 '바우하우스 100주년 특별전'이다. '근대 디자인의 시작'으로 불리며 디자인 역사에 큰 획을 그은 바우하우스의 정신을 재조명, 현대 디자인에 미친 영향과 의미를 고찰해본

전시다. 바우하우스 상징 조형물인 예술버스 프로젝트 'Tiny Bauhaus' (길이 7m, 폭 3m)가 설치되며, 당대 디자인 된 바우하우스의 대표적 오브제와 시각자료가 전시된다. 또 고대문화원으로부터 지원 받은 '바우하우스' VR영상을 통해 체험도 할 수 있다. 그밖에 박원민·안희원 등 국내 작가들이 재해석한 바우하우스의 모습과 함께 독일바우하우스 데사우 뮤지엄 토어스텐 블루메와 안상수+Pa Ti의 워크숍 결과물도 전시된다.

국제전의 또다른 색선인 '디자인과 공동체'에서는 전세계 유명 디자이너들이 참여한 21가지 현대 주택 모델을 제작, 가공의 도시를 만들어 공동체 주거 공간에 대한 디자인의 역할을 제안하고 '사회를 위한 디자인'에서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디자인의 출발과 그 모습을 구현한 북유럽 등 각국의 디자인을 공유한다.

◇산업·지역과 연계하다  
'사람, 사람들을 위한 기술'을 주제로 열리는 '기업관'은 사람과 사회, 사람과 환경을 연결하는 기술 전달을 통해 인간을 위한 디자인을 탐색해 보는 색선으로 '공유'를 중심 키워드로 놓고 다양한 전시를 구성했다.

그래피티 스튜디오 '범민'이 제작하는 밝고 경쾌한 이미지의 그래피티로 인트로 공간을 조성하며 일광전구의 감성조명, 기아자동차의 예술작가 작품, 아이튠즈의 스마트 의료플랫폼 등을 만날 수 있다. '응답하라, 너, 나, 우리!'를 주제로 구성된 '체험관'은 놀이와 휴식을 주제로 한 전시작품 발표와 작가와의 소통, 휴식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쉼터와 놀이터를 전시작품처럼 구성했다. 배움터는 '즐거움 학교'를 테마로 교육서비스 디자인 사례를 전시하며 '장터' 색선에서는 영국 전통시장, 송정시장 등 상업공간의 도시 디자인 사례를 연출한다.

'광주다움, 광주사람들의 움직임'을 주제로 열리는 '산업관'은 광주 산업과 디자인을 통한 비즈니스 창출을 도모하는 색선이다. 광주디자인센터의 산업화 디자인 프로젝트 성과물이 전시되며 광주주터산업진흥회 회원사의 제품과 지역 대학 디자인학과가 참여한 뷰티 패키지 전시도 열린다.

그밖에 국제통합학술대회, 대학생비즈니스 콘테스트 등 부대행사가 펼쳐지며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와 함께하는 사회 공헌 프로그램, 휴머니티 국제 포스터전, 한반도 평화통일국가 국제디자인도 개최한다. /김민은 기자 mekim@

## 1930 양림쌀롱

양림동 전역을 무대삼아 펼쳐지는 쌀롱문화축제 '1930양림쌀롱'이 오는 6월 1일 올해의 첫 번째 행사를 개최한다. 6월의 주제는 '낭만'.

### 마을이 무대... 6월에 만나는 '우리 시대의 낭만'

6월~11월 '문화가 있는 날' 토요일  
음악부터 연극·마켓까지 근대여행

6월부터 11월까지 매일 문화가 있는 날 주간 토요일 오후 2시~밤 9시에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광주의 근대(1930년대)를 소재로 음악, 연극, 전시, 마켓,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 '예술가의 시간'은 예술가 체험 프로그램으로, 한희원미술관에서 회화체험을 즐기고 이강하미술관에서는 큐레

이터와 함께 작품세계를 배우며 작품을 활용한 에코백 만들기 체험할 수 있다. 또 티소물리에 마담 도로시가 운영하는 '매종드레'에서는 각종 흥차 시음과 함께 흥차 드로잉 체험을 만끽하고, 율리메 문화관에서 '다음' 작가와 함께하는 다도체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미식여행을 코드로 양림을 즐길 수 있는 '양림맛(味)의 시간' 프로그램도 있다. 6월 1일 '양림제과', '양림빵집', '양인제과' 등 빵집을 가이드와 함께 둘러보는 투어프로그램 '양림빵지순례'가 개최된다. 근대식 양장이나 생활한복을 직접 입어보고 흑백 사진으로 프로필 촬영도 체험할 수 있는 '모단의(依) 시간'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카페에서 차(茶)와 함께 음악공연을 즐기는 '쌀롱서트'에서는 '낭만'을 주제로 어쿠스틱, 재즈, 국악 등 실력과 청년 아티스트들이 출연한다. 이강

하미술관에서 진행되는 토크 프로그램 '미스터 노바디 쌀롱'에서는 '우리 시대의 낭만'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이 밖에도 '양림힐리마켓', '양림달빛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1930년 광주에서의 청춘들의 이야기를 다룬 연극 '1930모던걸다이어리'의 새 시즌 공연도 이날 첫 공개된다. 올해는 충장로에서 상점 '김세상회'를 운영하며 거상으로 이름을 날렸던 실존 인물 '김세라'가 새로운 등장인물로 등장한다. 호랑가시나무 아트플라톤에서 오후 5시, 7시에 총 2회 진행된다.

'양림쌀롱 텀블러'를 구매하면 제휴카페의 커피와 음료를 최대 3잔까지 무료로 제공하는 행사도 진행된다. 각 프로그램은 사전신청 및 현장신청을 통해 참가 가능하다. 문의 070-4239-5040.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지난해 펼쳐진 '1930모던걸다이어리' 공연 모습.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 2019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기원 객실 **25%** 할인 판매

신양파크호텔

행사기간 **2019년 7월 10일 ~ 28일**  
예약/문의 062-228-8000 / 221-4114

www.shinyangparkhotel.com